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총괄 요약표**

평가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실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국민체감도 제외)			2	1.861
	(2) 정부 3.0			1.5	1.230
	(3)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1.000
	(4) 정부권장정책			5	4.520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5	3.099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성과				
	㉞ 사업비집행률			1	1.000
	(2) 계량관리업무비			6	4.679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1.5	C		
	㉞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	-		
(2) 총인건비 인상률			3	3.000	
(3) 노사관리	2	D ⁺			
주요사업	1.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6	5.670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제고 성과			3	2.951
	(3)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 ⁺		
	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확산				
	(1) 청소년활동 신뢰성 향상 성과			4	3.586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성과			3	2.531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확산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 ⁰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 확대				
	(1)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참여 성과			4	4.000
(2)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 ⁺			
전체 합계		13.5		45	

1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고객만족도결과 +상대등급별점수	목표부여	100	87.031	93.031	2	1.861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였고 평점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상대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 2016년 기관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상대등급별 점수(A등급: 6점)를 합산한 평점은 93.031점, 최종득점 1.861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기관의 다양한 사업 중 수련활동 사업의 결과가 2015년 대비 3.729점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 대비 0.791점 하락한 87.031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고객만족도 지수는 2013년 84.9점, 2014년 85.9점, 2015년 87.8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16년 87.0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2) 정부 3.0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공공기관 정부 3.0 평가결과	목표부여	100	81.990	81.990	1.5	1.230

나. 평가내용

- 정부3.0 체감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추진역량 및 중점과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2016년 기관의 정부3.0 평가 결과는 평점 81.990점으로 득점 1.23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3.0에 대한 홍보와 직원교육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을 통하여 전년 대비 7.29점 상승한 평점 81.99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공공기관 정부3.0 평가결과는 2015년 74.7점, 2016년 81.99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3) 경영정보공시 점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경영정보공시 일제점검 결과	목표부여	100	66.667	66.667	1.5	1.000

나. 평가내용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알리오) 일제점검 결과 13점의 벌점이 부과되었고, 구간별 득점기준에 따라 가중치 1.5점 중 1.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경영공시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자료 검증단계 확대 및 공시등록 전 오류검토 등 기관차원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2건의 중과실 허위공시와 1건의 경과실 허위공시가 발견되어 13점의 벌점을 부여 받았다.

라. 추세분석

- 경영공시 일제점검 벌점은 2014년 15점에서 2015년 0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13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4) 정부권장정책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90.400	90.400	5	4.520

나. 평가내용

- 법령상 의무권장사항 및 주요 국가정책사업 등의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해당 부처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520점을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1.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0.5	65.419	0.327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0.3	60.000	0.180
3. 장애인 의무고용	0.4	100.000	0.400
4.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	100.000	0.500
5.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2.6	95.115	2.473
- 중소기업제품	1.0	100.000	1.000
- 기술개발제품	0.2	85.420	0.171
- 여성기업제품	0.4	98.064	0.392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0.3	100.000	0.300
- 중증장애인 생산품	0.3	100.000	0.300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생산품	0.2	100.000	0.200
- 녹색제품	0.2	54.811	0.110
6.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0.5	100.000	0.500
7.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0.2	70.000	0.140
계	5.00		4.520

-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등은 부처 평가결과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고졸 채용과 시간선택제 채용의 부족으로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각각 65.419%와 60%로 낮은 달성률을 기록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또한 70%의 달성률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세부항목에서도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생산품은 부처평가결과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제품 85.420%, 여성기업제품 98.064%, 녹색제품 54.811%로 일부 지표들은 다소 미흡한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은 가중치 5점 기준에 2011년 4.420점, 2012년은 4.779점, 2013년 4.404점으로 등락이 있었고, 2014년 4.769점, 2015년 4.663점, 2016년 4.520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순사업비/평균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66,748,809 최저 : 47,202,175	57,456,871	61.970	5	3.099

나. 평가내용

-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순사업비를 평균인원으로 나눈 실적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6년 기관의 사업수행효율성의 실적치는 57,457천원으로 평점 61.970점과 득점 3.099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순사업비는 사업수익이 7%(3,124백만원) 증가하는 등 매출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5.331% 증가한 19,721백만원을 기록하였다.
- 평균인원은 사업인력 충원을 위해 전년 대비 4.385명(1.294%) 소폭 증가한 343.231명을 기록하였다.

- 순사업비가 전년 대비 5.331% 증가하였으나 평균인원의 증가율도 1.294%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표의 실적치가 전년도 대비 3.99%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최고목표 66,749천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득점도 전년 대비 0.145점 하락한 3.099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1인당 순사업비(순사업비를 평균인원으로 나눈 실적)는 2013년 67백만원, 2014년 58백만원, 2015년은 55백만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57백만원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성과

㉑ 사업비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사업비집행액/ 사업비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	100	100	1	1.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업비 예산 현액 대비 사업비집행액을 목표 대 실적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2016년 사업비 집행률은 100%를 달성하여 1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전년 대비 시설장비보완사업과 안전지원사업 등의 예산편성액의 감소로 2016년 사업비 집행액은 24,571백만원으로 전년도 사업비 집행액 25,082백만원에 비해 511백만원이 감소하였다. 2016년 예산현액 또한 전년 대비 시설장비보완사업과 안전지원사업 등에서 감소하고, 성취포상제 사업과 시설환경사업에서 증가하는 등의 변동으로 604백만원이 감소하였다.
- 2016년 재무예산성과는 사업비 예산현액 25,219백만원에서 낙찰차액 및 자체절감액 831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24,388백만원 중 24,571백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100.751%로 최종적으로 1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사업비집행률은 2012년 97.685%, 2013년 97.170%, 2014년 99.299%이며, 2015년과 2016년에는 100%를 달성하였다.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매출액	목표부여(편차)	최고 : 0.255 최저 : 0.399	0.295	77.990	6	4.679

나. 평가내용

- 적정수준의 관리업무비 관리노력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관리업무비 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6년 계량관리업무비는 실적 0.295로 평점 77.990점을 기록하여 가중치 6점 중 4.679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불필요한 관리업무비성 예산편성을 제한하는 등 관리업무비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하여 사업수익 대비 관리업무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2016년 관리업무비가 전년 대비 546백만원 증가했으나 정부보조금수익 2,681백만원 및 수련사업수익 1,040백만원 등 매출액의 증가로 인해 관리업무비 실적은 전년도 0.303에서 2016년 0.295로 소폭 개선되었다.
- 2016년 관리업무비 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관리업무비 실적이 최고 목표치에 하회하여 득점은 전년 대비 1.321점 하락한 4.679점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관리업무비는 2012년 11,452백만원, 2013년 10,030백만원, 2014년 13,999백만원, 2015년 13,515백만원, 2016년 14,060백만원이며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 매출액은 2012년 27,141백만원, 2013년 31,976백만원, 2014년 37,401백만원, 2015년 44,602백만원, 2016년 47,726백만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비위행위자 명예퇴직 제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상의 국경일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외, 과도한 온누리 상품권 지급 방지지침 마련 등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방만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복리후생 규모와 항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기관의 노력 결과로 1인당 복리후생비는 긍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SWOT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략과제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등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전략추진체계의 상호 연계성과 체계성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성과지표와 목표수준 및 목표 등과 같은 실행수준의 내용을 정비하고, 환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공공기관 중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복리후생 규모와 항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발굴하고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과 지속적인 의사소통 노력이 있어야 하고 수렴한 의견을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각종 의견수렴 채널, 처리기한, 처리기구 등의 내용을 제도화(규정화)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최저임금의 150% 이하인 1명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 권고안을 기준으로 할 때 임금피크제 실시를 통해 5년간 2명을 채용하고 2년에 5.3%를 감액하면 되지만 5년간 5명, 3년간 △10% → △15% → △20%를 감액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임금피크제 관련 4개의 직무유형(활동진흥, 활동운영, 경영지원, 공통적용가능직무)에 8개 직무별 배치기준(대외협력, 검사검증 지원, 활동프로그램 조사연구, 청소년 상담 및 생활지도, 청렴 감찰, 시설물 관리, 사내강사·청소년지도사·연수교육강사, 고객관리·사회공헌)을 고려하여 전환직무를 부여하고 있다. 직무배치 프로세스는 4단계로 설계되어 있고, 5등급 절대평가방식으로 사무처장과 원장이 평가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적절성, 업무 개선도, 업무량, 적시성,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 다만, 기관은 임금피크제 시행 후 신규채용 인건비가 부족할 때 그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을 노사합의 등을 통해 명확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직무전환자에 대한 평가요소에 비계량적인 요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다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계량적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2015년 11월 선포한 노사공동선언에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금지, 노

사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교육비(연 1인당 50만원), 자녀학비보조금(고등학교), 피복비, 기념품비, 특근매식비 등 복리후생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한, 하후상박 기조로 상급자의 임금인상률보다 고졸자의 임금인상률을 확대하였고, 무기계약직 2명과 계약직 1명 등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규정 등에 일신상 사정에 따른 휴직을 인정하는 것,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명예퇴직을 허용하는 것, 정직, 출근정지, 감봉, 유·무계결근, 대기 중 퇴직한 경우에 그 발령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직위해제 사유 중에서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에 대해 3개월간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구속된 경우에는 급여 미지급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한 집중휴가의 성격과 내용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휴가신설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예산편성지침	목표부여	4.5%	4.107%	100	3	3.000

나. 평가내용

- 정부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인상률 준수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4.5% 준수 여부를 목표부여로 평가하였다.

- 2016년 총인건비인상률은 4.107%로 정부의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평점 100점으로 3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정부 임금인상 상한 범위 내 인건비 4.107% 인상과 정원범위 내의 현원관리, 불필요한 복리후생비 인상억제 등의 관리를 통하여 정부인상률 가이드라인 4.5% 범위 내에서 총인건비를 인상하였다.

라. 추세분석

- 총인건비인상률은 2011년 4.825%, 2012년 2.200%, 2013년 3.238%, 2014년 1.373%, 2015년 5.033%, 2016년 4.107%로 정부의 인상률 목표치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노사관리

- 기관은 대내외 경영여건과 정부정책 분석을 기초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SWOT 분석을 통하여 전략방향을 설정하여 전사적 비전과 전략목표에 근거하여 노사관리 4대 전략과제 및 8대 실행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과제별 목표달성을 위해 계량 7개, 비계량 4개 등 총 11개의 지표를 설정하는 등 전략추진체계의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SWOT 분석을 통해 전략과제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등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상호 연계성과 체계성 등이 다소 미흡한 점, 전년 실적대비 당해년도 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목표치 설정방법 등에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전략추진체계에서 모니터링 주체가 실행과정별로 다양하여 통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략추진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주기와 각종 설문조사를 강화하여 환류에 반영하는 노력 등을 통해 모니터링과 환류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기관이 노사관계 전략 개발에 있어서 전략롤링 과정과 방법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과지표 실적치로 제시한 노사공동 선언과제 이행건수와 전 직원 맞춤형 노무교육 이수자 수와 같은 산출지표는 결과지표로 전환함으로써 지표를 고도화하고, 비계량 성과지표에 계량보조지표를 개발·적용하여 지표를 정교화하기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노사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소통채널의 상시적 효과를 점검하고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강화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갈등예방 및 조정 프로세스 등을 매뉴얼화하여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고충처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온오프라인 사전 갈등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의제 설정단계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HRD 중장기 로드맵을 통하여 HRD 목표를 제시하고 HRD 전략과 노사관계 관리역량 전략을 기초로 3단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당해 목표에 따른 노무전문가 육성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일반관리자 노무교육 강화, 전 직원 노사관계 기본역량확보 계획을 구축함으로써 전사적 인사노무관리 역량강화 체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한 실적이 인정된다.
- 다만, 기관은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갈등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갈등관리를 위한 내외부 환경변화와 타 기관의 문제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노사실무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갈등예방 및 조정 프로세스를 매뉴얼화 하는 등과 같이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관은 노조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외부교육에 노동조합원 참여인원이 하락한 것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여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법률적 역량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팔로우십 등 일반소양 역량강화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프로그램과 참여인원 제시를 넘어서서, 실제로 효과가 어떠한지를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개선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2014년도 경평 지적사항인 기관의 조직변경시 조합원의 고용보장 내용을 미개선한 상태이며, 전년도 경평 지적사항인 비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 조합 요구에 의해 조사 후 조치내용을 조합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도 미개선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며,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관련하여 재무와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재검토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서 조합규약에 따른 총회 등 일부 사유에 대해 횡수와 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 기관은 2015년과 유사하게 2016년에는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성장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 확대 등 3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 기관은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미션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가지 경영목표와 8가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국가정책 기여도, 고객 및 시장의 요구 등 환경변화,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3대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선정된 3대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핵심성공요인(CSF)을 개발하여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중기 경영목표와 2016년 주요사업 성과목표를 적정하게 연계하여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설정하는 한편, 주요사업별 계획과 담당부서 중점추진 사업 계획과의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전략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별 대표 성과지표(KPI)를 본부, 부서, 개인 단위까지 설정·평가하고, 결과는 성과연봉·성과급 및 승진과 연계하여 관리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1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당해연도 검증 사업수 - 전년도 검증사업수) / 전년도 검증사업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874 최저 : 0.186	0.827	94.494	6	5.670

나. 평가내용

- 청소년활동(학교단체 시범수련활동, 소외청소년지원, 특성화캠프) 사업에 대하여 사전·사후 효과유의성을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전년도 검증 사업 수 대비 당해연도 청소년활동 효과유의성이 검증된 사업 수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2016년도 청소년활동 효과성 향상 실적은 최고목표 0.874 보다 낮은 0.827로 평점 94.494점, 가중치 6점 중 5.670점을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해당사업의 효과유의성 검증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역량개발 모델 연구 및 지도자 지도역량 강화 등의 노력과 검증을 위한 검사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등의 제도 보완 등을 통하여 2016년에는 전년 대비 82.7%(296개) 증가한 654개의 사업에서 효과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라. 추세분석

- 효과유의성 검증 사업은 2011년도부터 측정하였으며, 검증된 사업 수는 2011년 132개, 2012년 175개, 2013년 183개, 2014년 234개, 2015년 358개, 2016년 65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효과유의성 검증사업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2년 0.326, 2013년 0.046, 2014년 0.279, 2015년 0.530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6년에는 0.827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 대비 순증가 수	-	43	8	51	124	296
효과성 검증사업 수	132	175	183	234	358	654
실적 (전년 대비 증가율)	-	0.326	0.046	0.279	0.530	0.827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제고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당해연도 전문연수 수료인원 -전년도 전문연수 수료인원) /전년도 전문연수 수료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1.559 최저 : 0.150	1.531	98.382	3	2.951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확대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활동하는 지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년 대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인원의 증가 실적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6년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인원은 11,152명으로 전년 대비 6,745명이 증가하여 증가율 1.531를 달성하였다. 증가율 실적은 최고목표 1.559 보다 낮은 1.531로 평점 98.382점, 가중치 3점 중 2.951점을 득점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항목별 원인

- 각 국립수련시설(중앙, 평창, 고흥, 김제, 영덕)별로 특성화된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확대 운영하는 노력을 통하여 '16년에는 전년 대비 153.1%(6,745명) 증가한 11,152명이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 인원은 2012년 1,546명, 2013년 1,659명, 2014년 2,376명, 2015년 4,407명, 2016년 11,15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증가율 또한 2013년 0.073에서 2014년 0.432, 2015년 0.855, 2016년 1.531로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 대비 순증가 수	-291	329	113	717	2,031	6,745
수료인원	1,217	1,546	1,659	2,376	4,407	11,152
실적 (전년 대비 증가율)	-0.193	0.270	0.073	0.432	0.855	1.531

(3)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 사업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제고 성과 향상’이라는 두 가지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SMART 기법을 활용하여 각각 세 가지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과제와 9대 실행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요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채널을 통해 추진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달성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추진활동에 대한 평가, 보상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는 열정OUR3.0 등 채널을 통해 전사적으로 공유·확산 체계를 구축한 점이 인정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첫 번째 전략과제인 청소년시기 미래대비 진로역량 확대를 위해 청소년 진로특화활동 모델(KYWA-3C)을 개발·전파하고, 자유학기제 등 진로지원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체험중심 진로활동을 대폭 확대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로체험 전문기관과 쌍방향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어촌

중학교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여 도농 자유학기제 인프라 격차 해소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국립수련시설 특성화 전략사업 확대를 위해 가족, 학교단체, 취약계층 등 대상별 역량증진을 위한 특성화 수련활동을 확대하고, 활동효과성 검증사업을 대폭 증가시켰으며, 정부부처 등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지원사업을 확대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청소년활동 지도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직무·전문연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소년활동 정책사업 담당지도자 맞춤형연수를 강화하였으며, 수요자 요구 맞춤 온라인 교육·연수 서비스를 강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진로체험활동 참여인원수 목표, 효과성 검증수, 전문연수 수료인원수 등의 계량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유학기 진로 체험활동 모델의 성공적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활동과 공교육 연계 확대 발판을 마련하고, 역량증진 및 건강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활동 제공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연수 과정의 질적인 개선을 통해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고품질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특화모델 개발 및 운영 확대를 통해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활동이 전년 대비 155%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수모델로 EBS에 방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립수련원 전문화를 통한 역량개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집단체계에서 소집단체계로 전환하여 민간시설과 차별화된 특화활동을 강화한 실적이 인정된다. 이 밖에 수요자 요구 중심의 교육과정 개선·운영으로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참가인원이 전년 대비 153%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전년도 사업의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환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

고 우수사례에 대한 대내외 공유 확산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또한 주요사업 성과와 담당부서 평가 연계로 책임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경영평가단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직원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가 전년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각각 74.5점과 65.5점에 불과해 제도개선과 교육을 통해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⑤ 주요사업별 범주의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사업의 계량지표를 효과성 검증 사업수 증가율, 전문연수 수료인원 증가율로 구성하여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성과 목표치도 전년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하여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한 점은 경영평가 편람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부전문가와 사업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2017년에는 효과성 검증 사업수 증가율을 사업효과성 검증률로 개선하도록 한 기관의 성과지표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

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확산

(1) 청소년활동 신뢰성 향상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text{인증 프로그램 확대 성과} \times 0.5 + \text{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 성과} \times 0.5$						
$\text{인증 프로그램 확대 성과} = \frac{\text{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 수}}{\text{청소년활동 기관 수}}$						
$\text{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 성과} = \frac{\text{인증위원회 심사통과 프로그램 합계}}{\text{당해 연도 인증신청 프로그램 합계}}$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4)	득점
인증프로그램 확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682 최저 : 0.465	0.626	79.304	2	3.586
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753 최저 : 0.535	0.755	100.000	2	

※ 단, 가중치는 해당 지표의 전체 가중치에서 각 세부지표에 할당된 가중치를 의미함

나. 평가내용

-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및 보유기관을 늘려 청소년활동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표로서 ‘인증 프로그램 확대성과’와 ‘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성과’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여 각 0.5의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4점에 반영하였다.
- 2016년도 인증 프로그램 보유기관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658곳 중 412개 기관으로 최고목표 0.682 보다 낮은 0.626의 실적으로 평점 79.304점을 달성하였고, 2016년도 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실적은 2016년도 인증신청 프로그램 1,091개 중 824개 프로그램이 심사통과 되어 최고목표 0.753을 상회하는 0.755의 실적으로 평점 100.000점을 달성하였으며 두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가중치 4점 중 3.586점을 득점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항목별 원인

-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 방식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컨설팅과정과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 비율 실적은 전년 대비 9.059% 증가한 0.626를 달성하였다.
- 2014년도 청소년수련활동 의무인증제 도입과 세월호 사고 이후 높아진 사회적 안전요구 증대에 따른 인증심사 강화로 낮아진 심사통과율의 향상을 위하여 현장 컨설팅과 설명회 등의 지원을 꾸준히 확대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인증위원회 심사통과율 실적은 전년 대비 17.236% 증가한 0.755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 수는 2011년 210개에서 2016년 412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 비율도 2011년 0.340에서 2016년 0.626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심사통과 비율은 2011년 0.736, 2012년 0.768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3년 0.607, 2014년 0.536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5년 0.644, 2016년 0.755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인증 프로그램 확대 성과)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 수	210	229	254	353	385	412
청소년수련시설 수 (유스호스텔 제외)	617	626	647	659	671	658
실적(인증프로그램 보유비율)	0.340	0.366	0.393	0.536	0.574	0.626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 성과)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심사통과 프로그램 수	242	212	783	1,553	1,301	824
인증신청 프로그램 수	329	276	1,291	2,895	2,019	1,091
실적(심사통과 비율)	0.736	0.768	0.607	0.536	0.644	0.755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안전사고 가중지수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목표부여 (편차/하향)	최고 : 0.000 최저 : 0.108	0.021	84.352	3	2.531

나. 평가내용

- 청소년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의 안전사고 감소를 통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립수련시설로서 민간수련시설을 선도하고자 하는 지표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대비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가중지수를 목표부여(편차/하향)로 평가하였다.
- 2016년도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은 2015년 대비 5,942명 증가한 데 비하여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2015년 대비 5점 증가하여 2015년 실적 0.017보다 하락한 0.021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평점 84.352점으로 가중치 3점 중 2.531점을 득점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전 직원 및 현장 활동지도 담당자 대상 응급상황 대처교육과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시설 및 장비 보완 등의 기관차원의 안전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16점 → 21점) 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활동 참여인원은 2011년 86,680명, 2012년 88,511명, 2013년 92,01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4년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76,46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93,376명, 2016년 99,318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2011년 114점, 2012년 63.5점, 2013년 126점으로 등락이 있었으나, 2014년부터 44.5점, 2015년 16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21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안전사고 가중지수	114.0	63.5	126.0	44.5	16.0	21.0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86,680	88,511	92,016	76,468	93,376	99,318
실적(가중지수 감소 성과)	0.132	0.072	0.137	0.058	0.017	0.021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확산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확산 사업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수련시설 및 종사자 안전의식 강화’, ‘제도 운영의 현장 실효성 강화’, ‘수련시설의 안전 신뢰성 증진’ 등 세 가지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SMART 기법을 활용하여 각각 세 가지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과제와 7대 실행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요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채널을 통해 추진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달성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추진활동에 대한 평가, 보상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는 열정OUR3.0 등 채널을 통해 전사적으로 공유·확산 체계를 구축한 점이 인정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수련시설 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 모험활동시설(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수련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련시설 종합안전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체험활동 안전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수련활동 신고등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미신고 활동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소년활동 지도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직무·전문연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소년활동 정책사업 담당지도자 맞춤연수를 강화하였으며, 수요자 요구 맞춤 온라인 교육·연수 서비스를 강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인증심사 통과율, 국립시설 안전사고율 등의 계량 성과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하였으나 다만, 인증활동 보유율은 전년에 비해 8.48%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은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실기형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안전교육 현업 적용도가 전년에 비해 4.4점 향상되는 등 안전교육 품질향상 성과를 가져온 점이 인정된다. 또한 시설이용 청소년 안전사고 대비체계를 강화하여 2016년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5개 국립시설 모두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민간 수련시설 안전관리를 선도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참가자 교육서비스 만족도(77.7점)와 수련활동 인증제 서비스 만족도(71점)가 여전히 낮게 나타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전년도 사업의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환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대내외 공유 확산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또한 인증프로그램 모니터링 강화, 인증비율 증대 및 고위험활동 현장 심사 의무화 필

요, 국립수련원 대관 대책 등에 관한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 실적이 인정된다.

⑤ 주요사업별 범주의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사업의 계량지표를 인증프로그램 기관 보유율, 인증위원회 심사통과율, 안전사고 가중지수 등으로 구성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확산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성과 목표치도 전년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하여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한 점은 경영평가 편람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부전문가와 사업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2017년에는 인증위원회 심사통과율 성과지표를 청소년인구 대비 인증활동 참여청소년 비율로 개선토록 하고, 수련시설 종사자 대비 안전교육 참여율 지표를 추가하는 등 기관의 성과지표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확산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⁰”로 평가한다.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 확대

(1)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참여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자원봉사 활동참여 성과 × 0.5 + 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 성과 × 0.5						
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성과 = $\frac{\text{당해연도 봉사인원} - \text{전년도 봉사인원}}{\text{전년도 봉사인원}}$						
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성과 = $\frac{\text{당해연도 포상인원} - \text{전년도 포상인원}}{\text{전년도 포상인원}}$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4)	득점
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106 최저 : 0.096	0.106	100	2	4.000
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341 최저 : 0.159	0.666	100	2	

※ 단, 가중치는 해당 지표의 전체 가중치에서 각 세부지표에 할당된 가중치를 의미함

나. 평가내용

- 자기주도형 청소년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표로서, ‘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성과’와 ‘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성과’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여 각 0.5의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4점에 반영하였다.
- 2016년도 ‘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 성과’는 참여인원 3,878,414명으로 최고목표 0.106과 같은 0.106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2점 만점을 득점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2016년도 ‘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 성과’는 참여인원 2,183명으로 최고목표 0.341을 상회하는 0.666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2점 만점을 득점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자원봉사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봉사활동 참여인원 수는 3,878,414명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다.
- 성취포상 활동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관에서는 저연령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의 노력을 지속하였고 포상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양한 홍보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 포상인원 2,183명을 달성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66.6% 대폭 상승한 성과이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인원 수는 2011년 2,649,290명에서 2016년 3,878,4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청소년성취포상 활동참여 증가율은 2011년 0.451, 2012년 0.370, 2013년 0.258이었으나, 2014년에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청소년활동이 급감하여 -0.082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5년 0.250, 2016년 0.666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 성과)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 대비 순증가 수	205,082	111,554	146,615	276,351	321,561	373,043
자원봉사 활동참여 인원	2,649,290	2,760,844	2,907,459	3,183,810	3,505,371	3,878,414
실적(전년 대비 증가율)	0.084	0.042	0.053	0.095	0.101	0.106

- 과거 5개년 및 당해 연도 실적(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 성과)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 대비 순증가 수	206	245	234	-94	262	873
성취포상 활동참여 인원	663	908	1,142	1,048	1,310	2,183
실적(전년 대비 증가율)	0.451	0.370	0.258	-0.082	0.250	0.660

(2)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확대 사업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참여기반 확대’와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기회 마련’이라는 두 가지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SMART 기법을 활용하여 세 가지 계량지표와 두 가지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2대 전략과제와 5대 실행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요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채널을 통해 추진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달성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추진활동에 대한 평가, 보상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는 열정OUR3.0 등 채널을 통해 전사적으로 공유·확산 체계를 구축한 점이 인정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사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의 진로교육과 성취포상제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 성취포상제 참여수요 증가에 따른 포상심사 기간 단축, 신규 탐험활동 전문기관 확대 등을 통해 대응·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해보험 서비스 도입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청 등을 통해 자원봉사의 활동 안정성·접근성을 제고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청소년활동의 자발적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정책제안 참여 기구 운영을 내실화하여 정책수용률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활동정보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e-청소년 정보서비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e-정보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는 83.08점으로 여전히 높지 않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보검색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콘텐츠를 내실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자원봉사 참여인원, 포상제 포상인원, 활동정보서비스 이용자수 등의 계량 성과가 전년 대비 각각 10.9%, 66.6%, 10.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비계량 성과목표 또한 대체로 적절하게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학기제와 성취포상제 연계를 통해 성취포상제 신규참여 인원이 전년 대비 32% 증가하고, 포상인원도 23% 증가하는 등 참여 활성화 기반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방식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e-청소년 정보서비스' 강화로 청소년의 정책수용률과 e-청소년 이용률이 급증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 국민 기관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국민적 캠페인이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기관인지도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전년도 사업의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환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6년 사업수행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서도 개선·환류활동을 한 실적이 인정된다. 특히, 성취포상위원회, 경영진 회의, 부처 평가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의 자체평가 결과를 2017년도 개선 환류계획과 연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기관에 대한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주요사업별 범주의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절한가?

- 기관은 사업의 계량지표를 청소년 봉사인원 증가율, 포상인원 증가율로 구성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성과 목표치도 전년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하여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한 점은 경영평가 편람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부전문가와 사업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2017년에는 청소년 봉사인원 증가율 성과지표를 청소년 봉사활동 지속(10시간 이상) 참여비율로 개선토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